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가운데), 서병기 유니스트 U미래전략원장(가운데에서 오른쪽) 및 임직원들이 지난 1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AX전략수립 비전 선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동서발전, 전사적 AI 전환 전략 선포 EZY플랫폼 공개로 업무효율 극대화

CAIO 임명, AI 리더 조직 강화  
안전관리·예측정비 체계 고도화  
EZY 도입, 반복 업무 대폭 축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AI 대전환(AX) 전략수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동서발전이 AI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산업 혁신을 이끌고,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과 동서발전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계해, 회

사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AI 대전환 비전을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여는 에너지 너머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전사 AI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대전환 추진의 핵심 가치로 'S-큐브'를 선언하며 △더 과학적이고(Science-based) △더 안전하고(Safety-first) △더 똑똑하게(Smart-managed)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강화, 예측정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는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중장기 비전 발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 임명,

AI 리더즈 발대식,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 사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EZY(EWP+EASY)'를 공식 공개했다. EZY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목표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동서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전 직원이 인공지능 전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남부발전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

조직개편·인사발령 단행  
'재생에너지본부' 등 신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석탄 폐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조직개편 및 37명의 조직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전담할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본부장으로 윤상옥 전무를 임명했다. 또 본사에는 '재생에너지개발

처'와 '재생에너지운영처'로 신설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2026년 6월 예정된 하동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에 대비해, 신규 LNG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하동복합건설본부 등 2개 건설본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석탄 폐지에 따른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술안전본부 산하에 '협력사 에너지전환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생명우선 균형환경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전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조직인 안전경영처를 '안전경영

단'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나갈 조직장 37명은 각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선발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장 안전 강화, 협력사와 상생까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교육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 독서교육 2030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문해력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내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체계 구축

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18일 광성중학교에서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확산시키는 중장기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

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AI 시대 독서교육의 방향성과 범사회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나타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교과 핵심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lhh@

##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정보·지원 확대 강조

농식품부,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세종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주관한 이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끈 지방정부·체험마을·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지방정부 담당자와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서비스(그린 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등 3개 부문에서 27개 시군·마을·모임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구현한 지방정부 가운데 충남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경남 창원 '벗돌배기마을'이 도시민 대상 농촌 체류 프로그램 우수 마을

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마을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7호인 '창원 독되 감농업' 기반자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운영하며 참가자에게 전문 영농기술·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해 현장 적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농을 함께 준비하는 도시민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청년 6명으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으로, 저비용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 자재 비교·현장 조사에 직접 나서고 비닐하우스를 자체 설계·조달·시공까지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우수 사례가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농가-유통사 직거래로 판로 혁신 나서

전국 농가 40곳, 대형 구매사와 1:1 교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산지조직)·구매사 직거래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회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의 일환이다.

이번 교류회는 전국 40개소의 농가조직과 유통·수출·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만남의 장으로,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구매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가조직은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식자재 유통사를 비롯해 네이버, 오아시스, GS리테일, 킴스클럽 등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NH농협무역 등 3개 수출업체와 4개의 식품제조업체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선한 '농가와 구매사 간 직거래' /aT

각회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aT는 설명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농가조직 담당자는 "오늘 상담을 통해 우리 지역의 품질 높은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농가는 유통 단계를 줄여 수익을 높이고, 구매사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외시장 다변화 기여 수출업체 15곳 표창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대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이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수산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수출공로탑'은 올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게 주어진다. 이 중 엠에이치수산은 2024년 수산식품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을 이어 올해는 수출 8000만 달러 달성을 7000만 달러 공로탑을,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 선일물산은 각각

3000만 달러 공로탑을 받는다.

엠에이치수산은 수산물 유통업과 수출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냉동수산물(고등어·참치 등) 수출업체로, 일본·중국·베트남부터 가나·코트디부아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여개국에 다양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집트 등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진물산, 예맛상사, 명품전복 영어조합법인 등 수출업체 15개사가 수상한다.

또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상품성을 갖춘 수산식품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브랜드 대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